

# 전북자치도, 고창 농업현장서 폭염 대응 점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근무환경 등 현장 점검  
야외작업 중지·냉방시설 설치 등 폭염 대응 수칙 이행 여부 집중 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고창군 농업현장을 찾아 계절근로자와 농업인의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어지는 폭염특보 상황에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농협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먼저 고창군 무장면의 한 농가를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확인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 작업 중지, 규칙적인 휴식 제공 등 폭염 대응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적으로 살폈다. 또한 작업장 내 냉방시설, 휴식 공간, 안전 안내판 등도 함께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무더위 쉼터는 농촌 고령층과 계절근로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고창군에는



10일 고창지역 농업현장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일행이 계절근로자와 농업인의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총 607개소, 전북도 전체에는 6,035개소가 운영 중이다. 쉼터는 마을회관,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에 설치돼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시설을 갖추고 9월 말까지 개방된다.

전북도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정읍시청에서 시군 담당자 및 농촌인력 중개센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와 현장 수

찰 요령 등을 포함한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다국어로 제작된 폭염 행동요령과 안전 자가점검표, 교육 영상 등을 시군과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배포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장별 대응 상황도 전담 체계를 통해 관리 중이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고온에 민감한 고추, 인삼, 과수, 시설채소 등에 대한 생육 예찰과 함께 미세살수장치, 차광망 설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축산 분야에서는 냉방장치와 환풍기,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동물의 료지원을 운영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계절근로자의 생활 여건 개선은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는 인명피해와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상반기 화재 피해 줄었다

산업시설 대형화재 증가 속... 인명·재산 피해 소폭 감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2025년 상반기 도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화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6월) 도내에서는 총 1,183건의 화재가 발생해 50명의 인명피해(사망 12명, 부상 38명)와 11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건수는 전년도보다 1건 증가했지만, 인명피해는 10명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도 약 6천만 원 감소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전체의 5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담배꽂초 불씨 방지, 음식물 조리 중 이탈, 논밭 주변 쓰레기 소각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도민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전년 대비 18.9% 증가해 258건이 발생했다.

또한 전체 화재 중 가장 많은 비

중(29.2%)을 차지한 장소는 야외(기타)로, 논과 밭, 들판, 마을 주변 등 도민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와 건조한 기후가 겹치는 시기에는 논밭이나 들판 등에서 불씨가 쉽게 확산될 수 있어, 농촌지역에서는 보다 철저한 화재 예방이 요구된다.

산업시설 화재는 전년보다 29.0% 증가했으며, 재산피해 역시 산업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 LG생명과학 공장 화재와 진안 지역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등 일부 대형 화재가 피해 규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자발적인 예방 실천 덕분에 전반적인 피해가 줄었다"며 "앞으로도 소방본부는 화재 통계 분석을 토대로 고위험 대상맞춤형 예방대책과 선제적 대응전략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임실 노후 교량 집중 점검 여름철 재난 예방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실군에 위치한 노후 교량인 오수교와 좌산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조적 노후화가 진행 중인 교량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점검에는 오택길 도민안전실장과 이진관 임실군 부군수를 비롯해 도 도로관리사업소, 임실군 공무원, 안전관리자문단 토목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오수교와 좌산교는 1980년대에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교량으로, 구조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보수·보강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는 여전하다.

이날 점검에서는 △교량 바닥판의 균열 및 손상 여부 △반침의 손상 상태 △기초의 세굴 및 침하 여부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기술진단과 육안 점검이 병행됐다.

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 교량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유지관리 및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위해 긴급 회의

도내 관계부서·14개 시군 참석...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예방 수칙 홍보 강화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고 온열질환자와 가축 피해 등 폭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관계부서와 14개 시군이 참석해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간헐성 현장 안전대책 △온열질환 예방 홍보 강화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9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74명, 이 중 사망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또 축산분야에서는 8만7,144두의 가축 폐사 등 재산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급증한 수치로, 당분간 폭염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도는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3대 계층(건설근로자, 고령 농업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을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물·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필요 시에는 공사 기간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 농가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재난 문자, 마을방송, TV 자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약계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전주시, 여름철 노숙인 보호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노숙인들의 보호를 위한 맞춤형 종합 대책을 가동했다.

시는 노숙인들이 폭염이나 집중호우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노숙인 거점지역 순찰을 확대하고, 거리노숙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응급잠자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전주지역에는 시설 노숙인 99

명과 거리노숙인 20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노숙인 시설 3개소와 대응체계를 구축해 거리노숙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숙인 응급잠자리 24시간 운영을 강화했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중점 보호기간을 운영하며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 시설과 샤워 시설이 갖춰진 시설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는 노숙인의 안전 및 건강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숙인 현장 순찰과 긴급구조 활동을 평일·주말 구분 없이 실시하고, 콜도시와 습식타월 등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로 인한 극심한 기온현상이 잦아지는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이 더 이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도, 기술창업 민관 협력 강화 나서

'민관협력 창업기업 발굴 육성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10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025 민관협력 창업기업 발굴·육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기업의 투자 연계 및 성장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민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6개운영사, 전북 창업지원 실무담당자, 예비TIPS 창업기업,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창업지원 정책과 투자 기반 확대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창업정책 발표에 이어, 전북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사업 참여 TIPS 운영사 6개사와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총 7개사 운영사가 참여한 리버스피칭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운영사들은 각자의 투자방향과 주요 포트폴리오 기업을 소개하고, 창업기업 선정 기준과 육성 전략을 공유하며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한국엔젤투자협회 김태광 고문이 연사로 나서, 창업 생태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과 민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통찰력 있

는 제언을 전했다.

패널토록에서는 운영사 대표들과 창업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창업기업 지원체계의 현실과 협업 모델의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또한 창업기관 협의회 실무회의와 TIPS 운영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 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을 나누고, 기관 간 공동기획 및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도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방산, 콘텐츠, 기후테크, 바이오헬스, 순환경제 등 6개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약 60개 창업기업을 TIPS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각 운영사는 분야별 직접투자, 맞춤형 보육, 데모데이 개최, 글로벌 진출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스케일업과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운영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구조를 강화하고, 전북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창업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며 실효성 높은 민관 연계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